

《 _____ 독서 세특 자료 》

하이에듀

주제	독서 세특 기재 자료
요약	<p>독서 세특 기재 관련 자료입니다. 제시한 지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창작'과 관련된 세특을 기재하면 됩니다. 글쓰기와 미래 문학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 작성 예시를 제시했습니다.</p> <p>세특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 기반 작성 방향>에서는 메일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 작성 예시를 제시했지만, 내용 연결이 비교적 미흡합니다. 원하는 작성 방향이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요청하면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 제안 방향>에서는 지문 내용과 진로 관련 연결 방향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섞어서 세특을 제출하면 됩니다.</p>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영상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입장 1>

순기능: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효과가 크다.

-> 역사의 대중문화화: 역사의 재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역사를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이자 자원으로 소비하는 방식

<입장 2>

역기능: 대중문화를 통해 재연되는 역사는 제작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 역사 대중화: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시,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법

<역사 대중화와 역사가의 중요성>

일반 대중도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역사하기'를 할 수 있다. (역사 대중화의 확산)

- ▶ 누구나 역사 해석과 서술을 할 수 있다고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며, 역사 영화 제작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질 것임.

[세특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한 내용 기반 작성 방향>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읽고 창작물의 바람직한 의미를 배웠으며, 미래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글쓰기는 '가능성을 만드는 에너지'이며 고통이 토대가 되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모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창작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 이를 통해 시대적 특성에 적합하고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이 미래의 문학이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밝힘.

<작성 제안 방향>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읽고, 창작물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함. 역사적 사료를 참고하여 창작자의 해석을 가미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창작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을 확실하게 하여 잘못된 역사적 지식을 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언어와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창작자는 이러한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문예 창작 관련 진로와 연결하여 변화를 반영하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